

음성 가이드 : 사이노카와라

만묘지 아래 지옥 옆 국도변에 있는 작은 불상들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. 이것들은 지장보살로 일본에서 친근한 불교보살 중 하나입니다.

불교의 가르침에서 죽은 아이는 황천국 삼도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합니다. 이유야 어쨌든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깊은 슬픔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아이들은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, 사이노카와라라는 모래밭에 벌거벗은 채 앉아 부모님을 공경하는 단 하나의 수단으로 끝없이 조약돌을 쌓아 탑을 만듭니다. 하지만 아이들을 괴롭히는 귀신이 그것을 금방 무너뜨려버립니다.

그런 아이들을 구하러 오는 것이 지장인데, 기모노 주름으로 아이들을 감싸 명토로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지장보살은 일본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, 붉은 모자나 붉은 턱반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, 조그맣게 쌓아올린 돌탑이나 장난감이 올려져 있습니다. 부모는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혹은 아이가 병에서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공양을 합니다.